

평화시장 화장실 옆에서 재단보조와 함께 (왼쪽이 전태일)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배움을 꿈꾸다



15살이 되던 해 봄,
 어머니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떨 듯이 기뻐어.
 5월에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은 벌써 두 달을 앞서 공부하고 있었지.
 나는 기초지식이 없어 영어와 수학 과목은 이해하는 데 무척 힘이 들었지만
 50분 수업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어.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단다.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 운동회 날이었어요. 오래달리기를 하는데 남들보다 한 바퀴나 뒤쳐졌지.
 맨 꼴찌인 내가 마치 일등처럼 보이자 지켜보던 친구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지. 꼴찌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나야.

전태일 수기 중(1963년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

인간적인 세상을 꿈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가족사진(앞줄 오른쪽인 세살
아기였던 전태일, 뒷줄 왼쪽부터
큰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태삼)



1968년경 중부시장에서 일할 때
재단보조, 어린 시다와 함께
(가운데가 전태일)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 남대문초등학교, 1963년 청옥고등공민학교^o를 잠깐
씩 다녔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신문팔
이, 구두닦이, 삼발이 장사 등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전태일은 학교를 다녔던 이 시기를 그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1965년 가을 평화시장에 있는 삼일사에 미싱 보조로 취직을 했
습니다. 첫 월급은 1,500원. 짜장면 한 그릇 200원, 하루 하숙비
120원도 낼 수 없는, 커피 한 잔 값(50원) 정도의 일당이었지만, 내
일을 기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생긴 것에 기뻐했습니다. 어
려서부터 아버지 재봉일을 도와 기술이 좋았던 전태일은 금세 월급
7,000원 받는 정규직인 미싱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여동생 나이의 어린 소녀들이 하루 커피값도 안 되
는 돈을 받고 16시간씩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 1966
년 잠바를 만드는 한미사에 재단보조로 다시 취직합니다. 공장에
서 가장 힘이 있는 재단사가 돼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에 월급
3,000원 받는 비정규직인 재단보조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1969년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 1970년 '삼동친목회'를 만들
어 청계천 일대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
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길에서 '우리
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를 외치며 마지막 항거를 했습니다. 이후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비판하는 인간선언이 이어졌고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o 고등공민학교

가정 사정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니는 야간학교이다. 선생님들은 주로 사범대학 3, 4학년생들이었다.

가장 행복했던 배움의 시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전태일이 학교에 다녔던 시기는 다 합쳐도 2년이 채 못 될 만큼 짧았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은 평생 배움을 갈구하며 틈틈이 책을 읽고 일기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배움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이자 ‘가장 행복하고’ ‘인간임을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태일의 일기장

“50분 수업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맑은 가을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들과 그들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어렵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가면서 벽에 써붙여둔 영어단어를 열심히 외웠다.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4시 반까지 일을 계속하고 학교에 가면 그때가 하루 일과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다.”

: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1963년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 수기 중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어린 시절



전태일의 생각, 안타까움, 소망이 뽀뽀히 적힌 일기장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어디 있어. 해보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꼭 대학입시를 보자. 앞으로 376일 남았구나. 1년 하고 10일. 재단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하면 내년에는 대학 입시를 보겠지. 해보자. 해라.”

: 1967년 2월 20일 전태일 일기 중



전태일을
말하다

전태일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도 사물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명석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행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명석함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 재야 운동가 장기표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의 가장 비범한 삶>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발견한 희망

노동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여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3-4항

당시 공장장이 있는 아주 큰 공장을 제외하고 평화시장 의류 공장은 재단사가 직원들의 입사와 해고, 임금까지 관리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재단사를 통해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태일은 재단사가 공정하게 약한 직원들 편에 서면 부당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여공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재단사가 됩니다. 하지만 재단사도 결국 주인에게 월급을 받는 직원일 뿐이었고, 여공들의 사정을 대변하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장은 그를 해고하기 일쑤였습니다. 전태일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 아버지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운동에 대해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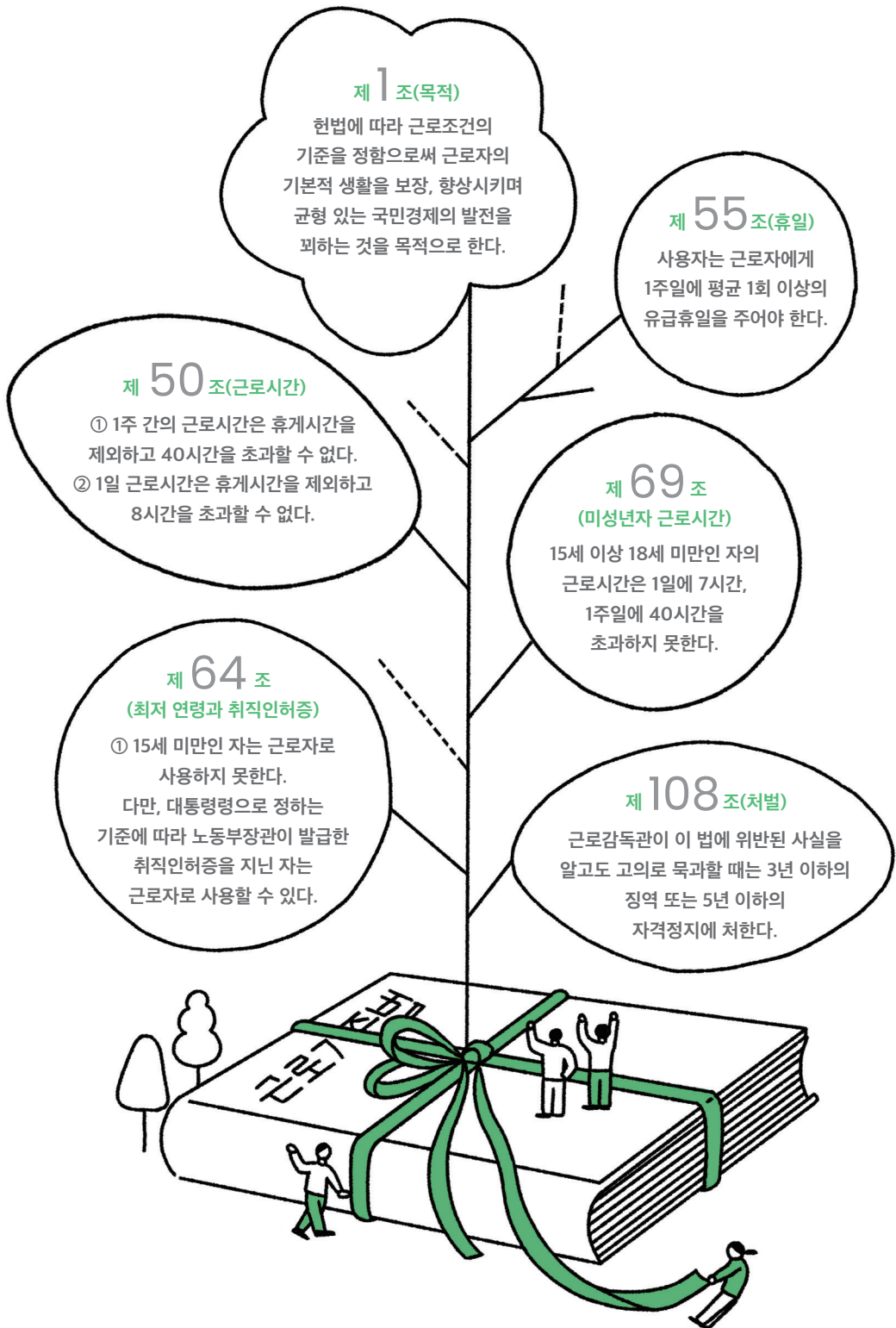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전태일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혹사당해온 자신과 동료들이 바보 같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 용은 그가 항상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전태일은 나라의 법으로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실천

● 전태일의 첫번째 해고와 깨달음

“재단사요, 난 이제 아무래도 바보가 되나봐요. 사흘 밤이나 주사 맞고 일했더니 이젠 눈이 침침해서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도 않고, 손도 마음대로 펴지지가 않아요.”

재단사인 자신에게 호소하는 어린 시다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던 전태일은 어린 시다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고 밤늦도록 혼자 작업장에 남아 시다가 할 일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들을 자기 마음대로 퇴근시킨다는 이유로 첫번째 해고를 당합니다. 재단사가 되면 시다들과 약한 직공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온정을 베풀 수 있을 거란 생각했던 전태일은 자신이 이제껏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시기 만나게 된 <근로기준법>은 그에게 큰 충격과 희망을 가져다줬습니다.



● 청년 전태일이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녔던 시기는 다 더해 2년도 채 안될 만큼 짧았지만 배움에 항상 목말랐던 나는 학교를 다녔던 이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추억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동인권 감수성 +



우리 삶의 엔진, 노동

누구나 노동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 종류도 다양하죠. 노동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엔진이자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노동자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잘 돼야 기업도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태일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냐
아서라 말어라 잠자코 있어라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아서라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서라 말어라 잠자코 있어라
신세 망치는 건 너희들뿐이다 말어라

곧이 곧대로 믿고 따라
기계처럼 일만하다 죽느니
사람답게 사는 바보로 살자
바보로 살자

: 음악극 '태일' 중(극작_ 장우성)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인간다움을 꿈꾸다



원섭아! 아무리 부(富)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이제 겨우 열네 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돼.
나는 이제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겠다든지, 대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보다
날마다 눈 앞에 부닥치는 동료 직공들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주나 하는 생각으로 꼭 미어지게 됐어.

평화시장 다락방 공장 어느 소녀의 하루

내 이름은 순이야. 하지만 이 곳에선 이름대신 ‘8번 시다’⁸로 불러. 집안이 가난하지만 앓았다면 어리광을 부리며 중학교에 다녔을 14살이야. 내가 일하는 작업장은 8평 정도로 좁은 곳인데 모두 32명이 일해. 재단판과 14~15대 되는 재봉대와 거기에 맞붙은 시다판으로 이미 방 안은 꽉 차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 좁은 틈에서 일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약 1.5미터. 원래 높이 3미터 정도의 방이었는데 공중예다 칸막이를 뒤 2층으로 만든 곳이라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 재봉틀 소음 속에서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을 오르내리며 공장 안의 크고 작은 온갖 심부름을 하는 게 내 일이야. 화장실 한 번 가려고 해도 주인아저씨와 미싱사 언니들의 눈치를 봐야 해 물도 잘 못 마시고 일해. 환기시킬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장은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뿌옇고, 이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와. 일거리가 밀려 사흘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일을 할 때면 주인아저씨가 사다준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억지로 밤을 새워 일해. 평화시장에서 5년 이상 일한 미싱사 언니들은 거의 전부 기관지염, 안질, 빈혈, 신경통, 위장병 따위의 고질병이 있어. 내 꿈은 하루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야.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년, 박광수 감독) 중 평화시장 봉제공장 모습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봉제작업실 시민체험공간

● 시다가 하는 일

평화시장 봉제공장은 재단사, 미싱사, 재단보조, 미싱보조, 시다로 이뤄지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일했던 전태일재단 이숙희 님의 증언에 따르면 ‘시다’는 보조원이라기보단 하나의 독립된 전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공장의 가장 막내인 시다는 다리미질과 실밥 뜯는 일, 실과 단추를 나르는 일부터 사업주나 미싱사, 재단사의 잔심부름까지 하루 16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보조없이도 일해도 시다 없이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은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50원. 시다들은 기술도 배우기 전에 골병이 들어 평화시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사업도 성공하는 모범업체 태일피복 구상

여러 독지가 여러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설명하고
사업자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력이 없어 대학 동창도 없고
집안 친척들 중에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덜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사회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범사업체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제품 계통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인에게 입증시키고 싶습니다.
사회의 여러 악조건 속에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들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 게
모범업체 설립 목적입니다.

: 전태일 모범업체 설립 사업계획서 중(1970년 3월)

전태일이 구상한 모범업체



미싱
50대



종업원
157명



자본금
3,000만원



노동시간
8시간



미싱사 급여
3만원



시다 급여
8,000원



직공교육
5명 교사
(월 급여 2만 5000원)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대우를



1969년 12월
평화시장에서 재단보조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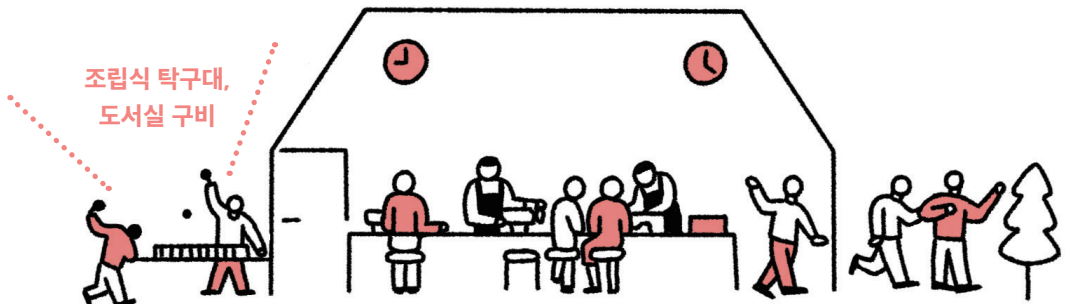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공장을 만들려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태일은 대학노트 30페이지에 걸쳐 사업방침(10개항), 필요한 각종 설비 비품의 숫자와 가격, 필요한 인원과 직공의 숫자와 인건비, 예상되는 한 달 수입과 지출의 내역과 총계,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그 판매방법, 소비시장 45개를 일일이 조사·기록한 '서울특별시 시장조사도', 직공들의 교육·오락시설과 처우문제 등에 관한 세밀한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도 제대로 못다닌 전태일이었지만 <태일피복 사업계획서>는 지금 보고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 > 기획전시관 > 모범업체 : 태일피복

직공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해 다른 기업체를
차리도록 원조. 그 기업체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



● 청년 전태일이

전태일기념관에서 바라본 세상은 참 많이 변했어요. 높고 으리으리한 빌딩과 화려하고 깔끔한 복장의 사람들,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으로 저를 찾아온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실습생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 '시다'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노동인권 감수성 +



우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동기본권 이야기

여러분은 '파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폭력적인 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파업'은 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 중 하나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자로서 비인간적인 처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노동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32조 1항)과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33조 1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들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오늘의 태일이가

저는 미용고등학교를 졸업 후 ‘스타 디자이너’를 꿈꾸며 청담동 ‘꿈의 공장’에 입사해 미용스타프로 일하는 19살 소녀예요. 이곳에선 하루 12~16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실습생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이만큼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요. 저도 처음에는 빨리 기술을 배워 스타 디자이너가 되면 돈을 많이 벌거니 지금 이 순간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쉽게 보이지 않아요. 미용실 막내인 저는 화장실 한 번 편하게 갈 시간이 없어요. 독한 파마약과 염색약으로 독이 오른 손은 굵아 텅텅 부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끼리 근로기준법도 공부하고 노동부에 고발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뿐이었어요. 오히려 노조활동을 했다고 찍혀 청담동을 떠나야 해요. 오빠가 저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 2018. 12. 5. 한겨레신문 보도 재구성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열정페이’라 부르더군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게 맞나요?

.....

.....

.....

.....

.....

.....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시작하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 수기 중(1969년)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꼭 돌아가야 합니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합니다.

전태일 일기 중(1970년 8월 9일)

전태일의 ‘풀빵 사랑’ 일화 버스값을 털어 풀빵을 사주던 시다들의 오빠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갓 취직했을 때
동료시다, 미상보조들과 함께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전태일)

전태일은 어린 소녀들이 갖은 구박과 멸시 속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게 마음 아파 미싱사가 된 후 시다들의 일을 대신 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부탁이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전태일은 시다들의 사정을 언제나 다 들어주었고 성가신 부탁에도 화 한 번 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본인의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집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늦어 죄송해요. 오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시잖아요.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졸졸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여섯 사람에게 나눠주었더니 한 시간 반쯤은 견디고 일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걸어왔더니 통금시간이 지나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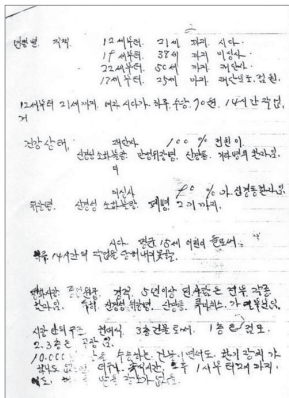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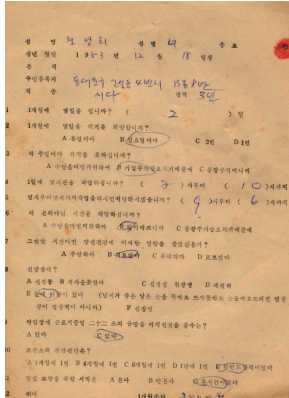
전태일은 공장에서 지위가 높은 재단사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사가 돼 어린 여공들을 챙겨주던 전태일은 사업주에겐 눈엣가시 같았고, 해고되기 일수였습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은 재단사가 온정을 베풀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태일은 이후 정부 관리가 평화시장의 현실을 몰라 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생각해 근로감독관과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눈

● 삼동친목회

전태일을 주축으로 한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재단사들의 모임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핫불이 되겠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어요.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삶, 세상에 알리다



평화시장 실태조사 설문지

전태일은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보회’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되찾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바보회는 이후 삼동친목회로 발전합니다. 삼동친목회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평화시장·동화시장·통일상가를 다니며 126명의 설문을 받아 근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평화시장 피복제품 종업원 근로 개선 진정서>를 만들어 노동부, 신문사, 방송국에 제출해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 10월 7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다음날 경향신문에 평화시장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관한 첫보도가 실렸습니다.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제목 아래 ‘소녀 등 2만여 명 혹사, 거의 직업병, 노동청 뒤늦게 고발키로’라는 부제를 단 기사였습니다. 평화시장의 오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것에 희망을 얻고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실천



전태일이
말하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께

저 착하다 착하고 깨끗한 동심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저희들이 요구는 1일 15시간의 작업시간을 10~12시간으로 단축해주십시오. 1개월에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현재 70~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1969년 11월경 작성, 실제로 발송하지는 않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밀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밀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은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다른 인병은 참아내야 하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에서 인간적인 최소를 충족하고 ~~특히~~ 오직 고매에 매인 급수처럼 주린 장치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다녀고 있습니다. 못 그러게 하십시오. 현 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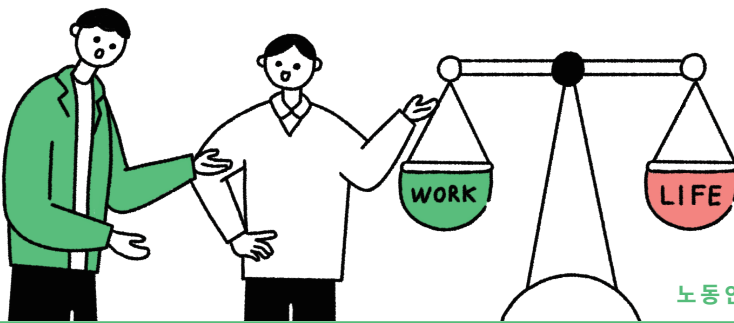
기업주들은 어려움이니까? 아무리 많은 특권을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이 각색을 느끼지 않습니다. 형편적이라는 생산물 들이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개 현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위. 중은 소견은 아파를 못합니다. 비심 존경하시는 근로 감독관 님. 이 모든 문제를 한바탕. 단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 12/19 일. 소년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밀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제가 사업 구상한 태일피복은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여가활동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을 구비하고 직원과 직원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한 사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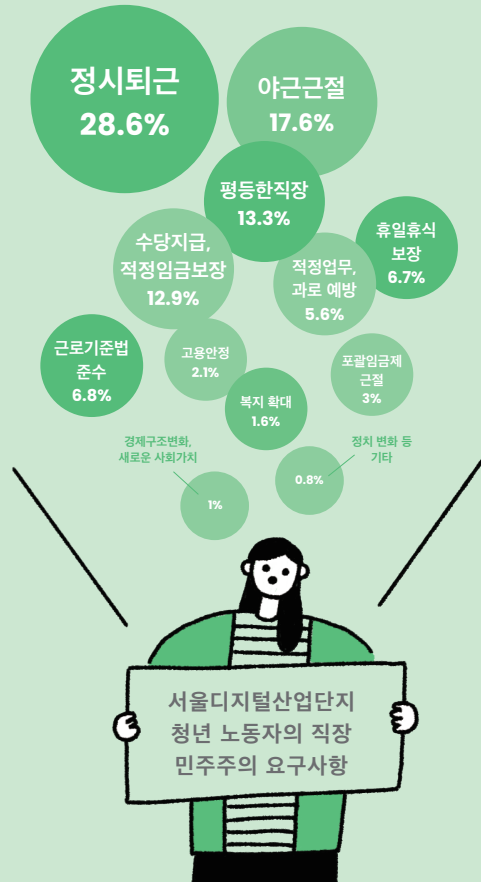
노동인권 감수성 +



노동자들의 바라는 일터

우리나라 20~30대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일터는 높은 임금도 아닌 ‘칼퇴근’과 ‘인간다운 평등한 직장’이라는 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무료노동부당해고 신고센터, 2019년) 이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이 쓴 구체적인 글귀를 살펴보면, ‘노동자는 경영인의 톱니바퀴가 아니다.’ ‘막말금지’, ‘상식이 통하는 직장’, ‘일한 만큼 보상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나이 어린 시다 소녀에게도 꼭 ‘시다님’, ‘미싱사님’이란 존칭을 붙였던 48년 전 전태일이 구상한 모범업체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자료: 무료노동부당해고 신고센터





오늘의 태일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OECD에 1996년 가입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줄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국가' 순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나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최근 화자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란 용어가 반갑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회사는 저의 일을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회사, 제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이로운 회사, 그리고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당한 휴식이 주어지는 회사입니다. 전태일 선배가 꿈꿨던 모범회사를 48년이 지나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후배들이 많으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일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경제를 개발하겠다고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시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으로, '공업화'를 통해 수출과 일자리를 늘려 국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였고, 큰 자본이나 기술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옷과 신발 공장 등을 장려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달성하면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며, 현재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낮은 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고등공민학교

가정 사정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 기관으로 보통 야간학교입니다. 전태일은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을 수기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며 영어단어를 외우느라 손을 데기 일쑤였지만 하루 일과 중 학교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행복해 신에게 감사했을 정도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이 시절'은 전태일의 짧은 생애 중 가장 희망차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노동조합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여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4항)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이유입니다. '되든 안되든 바보처럼 일단 부딪쳐나보자'며 전태일이 동료들과 만든 '바보회'는 평화시장 최초의 자발적 노동운동 조직입니다.



: 다락방

청계천 일대 봉제공장 사업주들은 밀려드는 일감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비좁은 작업장에 선반을 설치해 다락방 구조로 개조해 더 많은 재봉틀을 들여놓았습니다. 낮은 천장에 머리가 닿아 허리조차 펴 수 없는 환경에 창문이나 환풍기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화시장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소화 불량, 만성 위장병, 신경통, 안질, 폐병 등에 시달렸습니다.



: 명보다방

평화시장 입구에 위치한 명보다방은 전태일과 바보회 동료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토론하던 장소이자 삼동친목회 창립총회가 열린 장소입니다.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던 설문지와 근로감독관에게 보낼 진정서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명보다방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평화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 모범공장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모범공장, 태일피복 사업계획서>를 세웁니다. 아쉽게도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행되지 못했지만 지금 이대로 실행해도 괜찮을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구상이 담겨있습니다.

: 미싱사

평화시장 봉제공장은 고도의 노동집약적 숙련노동에 기대어 운영됩니다. 이런 까닭에 미싱보조 생활을 시작한 지 3~4년이 지나야 미싱사로 독립할 수 있고, 일류 미싱사가 되면 자신 밑에 보조공을 둘 수 있습니다. 보통 일류 미싱사 한 사람에 보조 미싱사 1명, 시다 2명으로 구성된 4인 1조의 작업조가 구성됩니다. 일류 미싱사가 되기 위해서는 견습공 생활부터 시작해 6~8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시장 여공은 데려가도(결혼) 3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화시장 여공생활 8년 만에 남는 것은 병과 노쳐너 신세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바보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을 '바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 걸으니,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까 바보랍니다. 안될 거라 미리 포기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과 전태일 중 누가 더 바보일까요?

: 바보회

전태일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첫 번째 재단사들의 모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더 이상 바보처럼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름입니다.



: 삼동친목회

청계천 일대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실재를 세상에 알리고 권익을 위해 싸우는 핫불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실천하는 재단사들의 모임입니다.

: 시다

평화시장의 '시다'는 하나의 독립된 전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보조 없이는 일해도 시다 없이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리미질과 실밥 뜯는 일, 실과 단추를 나르는 일, 사업주나 미싱사, 재단사의 잔심부름까지 하루 종일 공장 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12~15세 소년들이라 하루 30~50원밖에 안되는 돈을 받으며 16시간씩 힘든 노동을 해도 억울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인간적 문제

전태일은 일가장 곳곳에 '인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깁니다.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부한자들의 거름이 되는 비인간적인 세대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일이다."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 전태일 평전

전태일의 죽음 이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조영래 변호사는 수배를 받아 쫓기는 와중에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 증언을 모아 <전태일 평전>을 썼습

니다. <전태일 평전>은 전태일의 어린 시절부터 평화시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현실에 분노하다가 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 재단사

평화시장 봉제공장은 재단사, 미싱사, 재단보조, 미싱보조, 시다로 이뤄지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사는 직공들의 입사와 해고, 임금까지 관리했고 사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태일은 재단사가 공정하게 직원들 편에 서기만 하면 억울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정규직인 미싱사를 그만두고 비정규직인 재단보조로 다시 취직을 합니다.

: 전태일재단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전태일재단은 우리시대 전태일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11월마다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으며, 한 해 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노동운동을 한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전태일노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태일문학상>을 제정, 매년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의 글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 전태일의 고귀한 인간사랑 정신을 청소년, 일반 대중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제작했으며, 2019년 국민 모금으로 애니메이션 <태일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재단은 지금 현재도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하청업체 노동자 등 또 다른 전태일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 청계천변 판잣집

한국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었고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이 청계천변에 자리를 잡고 판

잣집을 지었습니다. 독방을 따라 긴 판자촌이 형성됐고, 이곳에 사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상·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판자촌의 오물은 그대로 청계천으로 떨어졌고, 청계천이 생활하수로 오염되자 정부는 콘크리트로 청계천을 그대로 덮는 복개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청계천 복개공사로 철거된 판자촌 자리에 평화시장이 들어섭니다. 청계천은 2005년 다시 하천으로 복원됐습니다.

: 청계피복노동조합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죽음 이후 서울대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전태일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각 대학은 무기한 휴업령을 내렸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했고,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연대투쟁 등을 전개하며 한국의 노동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풀빵

자신보다 힘들고 억울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전태일의 '사랑'은 '풀빵'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어린 시다들에게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 주던 그는 마음의 고향인 평화시장 어린 동심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 평화시장

평화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청계천 주변에서 미군 군복과 담요 등으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기보다 사서 입는 기성복 시장이 커졌고, '만들면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화시장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앞지 않을게요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태준식 감독(다큐멘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전태일입니다. 내 아들 전태일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태일, 전태일 하고 외치니까 전태일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무슨 전태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고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외치는 사람 모두가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노동자를 위해 일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이소선은 아들이 꿈꾸었던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들이 죽은 후 40여 년의 세월을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많은 나이에 건강도 약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엔 어김없이 달려나가 힘을 보탰고, 험 곳을 팔아 번 돈으로 가난한 노동 운동가를 돌봤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당시 독재정권은 어머니를 여러 차례 감옥에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노동자를 위한 일에 늘 앞장을 섰습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어머니 이소선

함께 하는 사람들



플 빵 상

당신은 전태일과 꿈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태일의 삶을 함께 여행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본
당신에게 이 플빵상을 드립니다.

